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미국증시 혼조 마감..마이크론 시간외 급등

- 미국 증시 혼조 마감: 다우+0.35%, 나스닥 -0.43%
- 국제유가 전쟁 이전 수준 근접..국채금리도 하락
-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분기 매출 '사상 최대'

Summary

미국증시 순환매 속 지수별 혼조 마감

6월 24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는 지수별로 혼조 마감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감 이후 회계연도 기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최근 AI 수익성 논란과 함께 연일 부진했던 AI 반도체를 포함 대형 기술주는 부진했고 이에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약세. 다만 유가와 국채 금리의 유의미한 하락세 속에 시장 내 순환매가 포착되며 다우지수와 중소형주 중심 러셀2천 지수는 상승.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35% 상승한 51,848.90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10% 하락한 7,358.22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0.43% 하락한 25,476.636에 거래를 마쳤으며 나스닥 100 지수는 0.43% 하락한 29,220.056에 거래를 마칩.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0.37% 상승한 2,986.629에 마감.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 VIX는 4.41% 하락한 18.63을 기록.

(다우 +0.35%, 나스닥 -0.43%, S&P500 -0.10%, 러셀2000 +0.37%)

한편 마감 이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깜짝 실적과 함께 반도체주 전반이 시간외 거래에서 반등하고 있으며 이에 S&P500 선물 지수와 나스닥 100 선물 지수는 1~2%대 상승세를 보임.

유가 안정에 국채 금리도 하락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한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이후,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량이 크게 늘었고 이에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함. 블룸버그는 이날 현재 유럽과 이상 전역 시장의 원유 물량이 폭증한 상태라고 보도했으며 미국 에너지부 장관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정상 수준을 향해가고 있다고 주장.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번주 아랍에미리트(UAE)의 총 석유 수출량이 6월 초 이미 전쟁 이전의 85% 수준에 달했다고 밝힘. 전쟁으로 인한 공급 병목 해소를 시사하는 이 같은 소식들은 유가를 연일 끌어내려 WTI는 나흘째 하락, 배럴당 70달러 수준에 마감, 전쟁 발발 전일 이후 최저를 기록. 브렌트유도 사흘째 하락하며 2월 27일 이후 최저를 기록.

유가의 급격한 하락은 인플레이션 전망을 약화시키며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가격 하락을 정유사 휘발유 가격에 빠르게 반영시킬 것을 압박한 것도 금리 하락에 힘을 실는 요인이 됨. 유가 하락과 금리 하락은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를 둘러싼 경계감이 여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외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심리는 양호했던, 시장 내 순환매 흐름의 근거가 됨.

마이크론 실적: 시발 반도체 수요 확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회계연도 기준 2026년 3분기 실적 발표를 장 마감 이후로 앞둔 가운데 이날 시장은 정규장에서 AI 반도체 등 기술주 위주의 경계감을 뚜렷하게 드러냈고, 이에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약세권에 거래를 마침. 다만 마감 이후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최근 며칠간 위축됐던 투자심리에 안도감을 불어넣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345.7% 급증한 414억 6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358억 4천만 달러를 웃돌며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영업이익률이 1년 전 26.8%, 직전 분기 69%에서 전분기 81.2%로 치솟았다고 밝힘. 조정 주당 순이익(EPS)도 25.11달러로 시장 컨센서스 20.78달러를 상회함. 마이크론은 4분기에도 실적 호조는 이어질 것이라며 매출 500억 달러 돌파를 전망, 시장 예상 435억 8천만 달러 대비 월등히 높은 가이드언스를 제시함. 회사는 6세대 HBM4가 고객사 플랫폼에 대량 탑재되고 있고, 7세대 HBM4E의 개발도 차질없이 진행돼 내년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 산자이 메모트라 CEO는 강력한 실적 흐름에 대해 “AI 시대 메모리의 전략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다년간의 전략적 고객 협약(SCA)이 마이크론의 견고한 실적, 그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 여기서 언급된 전략적 고객 협약(SCA)은 최근 메모리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장기 공급 계약(LTA)과 같은 개념이며, 마이크론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데이터센터와 컨슈머, 오토 부문에 걸쳐 총 16건의 SCA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힘. 이 SCA 계약 기간 내에 DRAM 물량의 약 20%와 NAND 물량의 약 30% 가량이 묶이게 되며 모든 계약이 완료될 경우 전체 회사 매출의 약 절반 이상이 SCA에 편입될 것이라고 전망함. 회사는 SCA의 기간은 기본 5년이며 현재 서명을 마친 SCA를 기준으로 220억 달러의 현금 예치금과 관련 재무 약정을 수령할 것이라고 밝힘.

마이크론의 이번 실적은 전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 이상의 폭발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이드언스가 여전히 기대 이상이었다는 점 이외에도 장기 계약 관련한 세부 내용들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실적 가시성과 실적 성장의 연속성에 대한 시장 신뢰 상승이라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임. 이는 최근 다시 불거진 AI 수익성 논란과 그로 인한 AI 반도체주 실적 성장의 한계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임.

미 연준 “은행 시스템 견고”

미 연준이 미국 내 대형은행을 상대로 실시한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공개. 연준은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을 가정한 이 테스트 결과 조사대상 32개 은행 모두 충분한 체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힘. 연준이 가정한 스트레스 상황은 실업률 10%, 상업용 부동산 가치 39% 급락, 주택가격 30% 하락 등으로 은행들은 이 같은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보통주 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한편 기업과 개인 대상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

로 확인됨. 미셸 보먼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오늘 테스트 결과는 미국 은행 시스템의 견고함을 잘 보여준다”고 평함.

특징종목

반도체주 하락: 마이크론 실적 발표 후 시간외서 반전

하이퍼 스케일러의 잇따른 회사채 발행과 증자를 통한 AI 투자, 이런 와중에 불거진 AI 산업 내 가격 경쟁에 대한 우려, 그로 인한 하이퍼 스케일러 수익성 논란과 관련 반도체 업체 성장의 한계에 대한 우려. 이렇게 줄줄이 이어진 우려 속에 최근 연일 약세였던 반도체주는 이날 마감 이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 속에 하락세를 이음.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전일 7%대 급락에도 반등하지 못하고 0.18% 추가 하락했고, 엔비디아(-0.5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0.31%), 인텔(-0.48%), 퀄컴(-3.29%), 샌디스크(-2.50%), 시게이트(-4.37%), 웨스턴 디지털(-4.01%), KLA(-1.64%) 등 대체로 약세 마감. 브로드컴(+0.51%)은 오픈 AI와 LLM 추론 전용 AI 가속기 ‘할라피뇨’를 공개하며 소폭 상승했지만 AI 스타트업 모듈러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 1920만 주 신주 발행에 나선다고 밝힌 퀄컴(-3.29%)은 낙폭이 컸음.

마이크론 실적 발표 후 시간외서 반전

다만 마감 이후 발표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기대 이상의 실적과 가이던스, 그리고 시장 우려를 잠재울만한 전략적 고객 협약(SCA)의 디테일한 조건에 대한 업데이트까지 모두 투자심리에 우호적이었고 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 외 거래에서 두 자릿수 반등을 보였을 뿐 아니라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AMD, 시게이트, 인텔 등도 시간외 거래에서 급반등. 이는 전일 직전 거래일의 급락분을 일부 만회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개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

순환매: 대형 기술주에서 경기민감주로

23일에서 26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는 프라임데이가 시작된 가운데 아마존닷컴(+0.07%)이 소폭 상승했지만 이를 제외하면 엔비디아(-0.52%), 마이크로소프트(-2.27%), 애플(-0.41%), 구글 알파벳(-0.24%), 메타 플랫폼스(-0.81%), 테슬라(-1.59%) 등 빅테크 종목 전반이 약세. 테슬라는 일부 호재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JP모간이 2분기 차량 인도 대수를 하향한 가운데 약세.

유가와 금리 하락은 빅테크로의 쏠림 대신 주택 건설 업종, 카드와 보험 중심 금융 업종, 그리고 바이오/헬스케어 업종과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업종 군등으로의 순환매로 이어짐.

비트코인 6만 달러 하회

비트코인 가격이 59,300달러대까지 하락하며 가파른 투매 양상을 보임. 세계 최대 가상자

산인 비트코인은 최근 일주일 새 약 10%, 한 달 새 약 23% 하락해 암호화폐 관련 종목 전반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음.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8개월만에 절반 이상 증발했는데 지난 2025년 10월 6일 4조 3000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후 현재 전체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약 2조 달러 수준에 그쳐.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블랙록 IBIT를 비롯한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의 지속적인 자금 유출. 여기에 최근 코인베이스 글로벌과 크라켄, 블랙록, 윈터뮤트, 바이낸스 등 대형 암호화폐 기업과 기관도 보유 물량 상당 부분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종목도 동반 약세. 스트래티지(-9.35%), 온다스 홀딩스(-9.96%), 어플라이드 디지털(-7.27%), 아이렌(-8.08%), 사이퍼 마이닝(-5.14%), 클린스파크(-5.58%),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7.34%), 코인베이스 글로벌(-5.10%), 로빈훗 마케츠(-5.87%), 셔클 인터넷 그룹(-6.21%) 등.

트럼프, 휘발유 가격 인하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형 석유회사들이 유가 하락분을 휘발유 소매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관련해 법무부에 즉각 조사를 지시함. 석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해 휘발유 가격이 원유 가격과 완전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원유 가격 이외에도 정제 비용, 운송비, 주별 세금, 지역 재고, 그리고 기존에 비싼 가격에 사들인 물량의 소진 속도 등이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 그럼에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유소 휘발유 가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임. 이에 매러션 페트롤리엄(-0.81%), 발레로 에너지(-0.51%), 필립스 66(-1.00%), PBF 에너지(-0.86%) 등의 정유사 주가가 하락했고 이외 엑슨모빌(-2.03%), 셰브론(-2.57%) 등 정제 부문을 갖고 있는 통합 메이저 업체 주가도 약세. 이외 휘발유 가격 인하 압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E&P(탐사/생산) 업체 코노코필립스(-2.77%), 옥시덴탈 페트롤리엄(-2.18%), 데번 에너지(-1.50%) 등도 유가 하락과 맞물려 동반 약세.

다만 유가 하락은 델타 에어라인스(+4.53%),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7.40%), 익스피디아 그룹(+6.97%) 등 항공/여행주에는 상승 요인.

사모대출 부실 우려: 소프트웨어주도 약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보유 자산 매각을 미루기 위해 활용하는 계속 보유 펀드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전일 아폴로에 이어 이날 모건스탠리도 70억 달러 규모의 사모대출 펀드 ‘노스헤이븐 프라이빗 인컴 펀드’가 2분기 펀드 전체 지분의 11.6%에 달하는 환매 요청을 받았으며 환매 한도를 5%로 제한했다고 밝힘. 모건스탠리는 2분기 환매 요청 절반 이상이 1분기 환매 요청 금액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로부터 나왔다고 밝힘. 현재 1.8조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사모대출 시장은 최근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가치를 지나치게 고평가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환매 요청이 빗발치고 있음. 발전된 AI 모델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기업들이 굳이 비싼 돈을 내고 소프트웨어를 구독할 유인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모 대출의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로 인해 사모 대출 펀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 이날 블랙록(-3.22%), 블랙스톤(-5.90%),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6.13%), KKR(-2.13%), 아레스 매니지먼트(-5.72%) 등 사모대출 관련 기업들이 전일에 이어 일제히 하락했으며 사모대출 부실과 관련한 우려는 그 투자 대상인 오라클(-4.62%), 서비스나우(-2.23%), 마이크로소프트(-2.27%), 포티넷(-1.84%), 펠로앨토 네트워크(-1.94%), 클라우드 스트라이크(-1.16%) 등의 소프트웨어 기업 주가도 약세 요인으로 반영됨.

이외 특징주

선련(+12.57%)이 테슬라(-1.59%), 리뉴홈과 16 기가와트 규모의 가상 발전소 동맹을 맺음. 수백만 개의 스마트 기기와 가정용 배터리를 연결해 데이터센터와 전력 회사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로, AI 산업 팽창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이라는 평가.

일라이 릴리(+0.92%)는 센테사 제약 인수를 완료, 파이프라인 확대를 지속하고 있음.

우버 테크놀로지스(+6.00%)는 최근 로봇택시 파트너십 확대 흐름 속에 낸시 펠로시의 신규 매수 종목으로 확인되며 강세.

한편 웬디스 컴퍼니(+25.66%) 주가가 개인 투자자 매수가 급증한 가운데 급등. 특히 레드잇의 월스트리트베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며 전형적인 밈 스탁의 형태를 보임.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제유가 급락..전쟁발 상승분 거의 반납

국제유가는 WTI 기준 나흘째 하락.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 정상화 기대감에 급락해 전쟁 발발 이전 수준에 근접.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이 이날 지난 24시간동안 약 72척의 선박이 2천만 배럴의 원유를 운송했다며 앞으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 이에 유가는 장 중 낙폭을 지속 확대하는 흐름. 미 에너지 정보청(EIA)가 공개한 주간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608만 8천 배럴 감소해 9주 연속 감소를 기록했으며 감소 폭도 시장 예상보다 컸음.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3.92% 하락한 배럴당 70.34달러로 거래를 마침. 이는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27일의 67.02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준. 브렌트유 8월물도 4.33% 하락한 배럴당 73.74달러에 마감해 역시 2월 27일 72.48달러 이후 최저 종가를 기록함.

다만 국제 금가격은 지속되는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 대비 3.4% 하락한 트로이 온스당 4,009.3달러를 기로. 한 때 3,980달러선까지 하락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내줌.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도 7% 가까이 급락해 온스당 57달러 후반대를 기록.

국채금리 하락

미 국채 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일제히 하락. 국제유가가 이란 전쟁으로 올랐던 부분을 거의 다 내주고 전쟁 발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며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이어짐. 트럼프 대통령이 정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며 원유 구매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판매 가격을 이에 상응하는 만큼 내리지 않은 정유사들에 대한 법무부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한 것도 휘발유 가격 하락 전망을 매개로 한 기대 인플레 하락 요인. 미 국채 시장에 반영된 기대 인플레이션(BEI)은 10년물 기준 장 중 2.18%를 하회, 지난해 4월 이후 최저를 기록.

2년물은 5.3bp 하락한 4.1456%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10.5bp 하락, 4.3922%를 기록함. 30년물 금리는 10.6bp 하락해 4.8396%를 기록. 이에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이는 5.2bp 축소된 24.66bp로 지난해 2월 이후 최저를 기록.

미 재무부가 오후들어 실시한 5년물 입찰은 다소 부진한 수요와 예상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국채 가격에 우호적인 이벤트는 아니었으나 이날 국채 금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 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17% 내외로 전망 대비 높여 반영했으며, 연내 한 번 인상할 가능성을 39%, 두 번 인상할 가능성을 31% 내외로 반영. 세 번 이상 인상할 가능성도 11% 내외로 집계됨.

달러 가치 5일째 상승

미 달러화 가치는 5거래일 연속 상승.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지속되고 있는 엔화 약세와 유로화 약세도 달러 강세에 힘을 실음.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0.15% 상승한 101.564로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래 최고치를 기록. 장 중 101.8선까지 상승하기도.

달러-엔 환율은 161.82엔 선으로 162엔 선에 바짝 다가섰으며 유로-달러 환율은 0.22% 하락. 다만 유로-달러는 이사벨 슈나벨 ECB 집행이사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매파적 발언을 하자 낙폭을 축소함.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1,541.80원에 마감, 17년만에 종가 기준 1,540원을 상회한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0.90원 상승한 1,542.70원에 마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70원)를 감안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증가 대비 0.80원 상승한 1,541.90원에 마감.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